

GS2 순환 8 회차 인사노무관리론 채점총평

구분 점수

평균점수 54.5점 / 75점

중앙값 56점 / 75점

최저점 23점 / 75점

최고점 64.5점 / 75점

평균은 약 54.5 점, 중앙값은 56 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값이 평균보다 조금 높다는 것은 일부 낮은 점수의 답안이 전체 평균을 다소 끌어내렸다는 의미입니다. 전반적으로는 50 점대 중후반에 점수가 비교적 많이 형성되어 있으며, 상위권 답안은 60 점대 초중반까지 형성되었습니다.

채점 총평

전체적으로 이번 모의고사는 문제 1 보다 문제 2 에서 점수 차이가 더 크게 발생한 시험으로 평가됩니다. 문제 1 의 경우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의 기본 개념은 많은 답안에서 어느 정도 제시되었고, 임금·근로조건은 단체교섭, 생산성 향상과 경영효율 문제는 노사협의회로 구분해야 한다는 방향도 상당수 답안에서 드러났습니다. 다만 고득점 답안과 중위권 답안의 차이는 **비교축의 명확성**에서 발생했습니다. 상위권 답안은 주체, 목적, 대상, 성격, 쟁의행위 가능성, 결과물 및 법적 효력을 기준으로 양 제도를 비교한 반면, 중위권 답안은 단체교섭은 대립적, 노사협의회는 협력적이라는 수준에 머무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제 2 는 전직지원서비스의 개념 자체는 대체로 알고 있었지만, 답안의 완성도 차이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고득점 답안은 전직지원서비스를 단순한 해고자 재취업 지원으로 보지 않고, **해고자 효과, 기업 효과, 정부 효과, 한계,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을 체계적으로 나누어 제시했습니다. 특히 OPC 와 IPC 의 병행, 고용보험제도 활용, 절차적 공정성, 사후 성과점검까지 언급한 답안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낮은 점수의 답안은 전직지원서비스를 해고자 위로 또는 재취업 지원 정도로만 설명하고, 정부 효과나 한계, 운영방안을 충분히 전개하지 못했습니다.

사례 적용 측면에서는 대다수 답안이 보완이 필요합니다. 많은 답안이 이론은 알고 있었으나, 사례 문구를 직접 끌어와 논점과 연결하는 힘이 부족했습니다. 문제 1 에서는 **임금체계 개편, 생산성 향상, 경영효율성**이라는 표현을 답안에

직접 반영하는 것이 좋고, 문제 2에서는 **소송 가능성, 기업이미지 훼손, 잔류종업원 동요, 형식적 운영 우려**를 각 항목에 연결해야 점수가 안정적으로 올라갑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답안들은 기본 개념 암기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고득점에 필요한 **제도 간 비교의 정교함, 사례 적용력, 운영방안의 구체성**에서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개념을 나열하기보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항목을 먼저 목차화한 뒤 각 항목마다 중요 개념 및 핵심 키워드를 서술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례형 문제에서는 사례의 핵심 단어를 답안에 직접 재사용하면서, 이론과 사례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답안을 구성해야 합니다.